

## 2-41. 중국얼룩날개모기(*Anopheles sinensis*)의 난성숙기간(gonotrophic cycle)과부화기간에 대한 야외 관찰

신이현, 김종화, 이윤식, 서보열, 이희일, 신영학, 이원자

국립보건원 의동물과

모기매개질병인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계절에 따른 매개모기 종의 난성숙기간(gonotrophic cycle)은 매개종의 흡혈빈도, 일일생존율(daily survival rate) 그리고 매개능력(vectorial capacity) 등을 산출하는데 중요한 필수 요소이며, 매개종이 질병전파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02년 3월부터 10월까지 야외조건에서 중국얼룩날개모기의 난성숙기간을 계절별로 확인하였고, 또한 이때 생산된 알을 대상으로 산란 후 부화하기까지의 기간과 산란 수 등을 병행 관찰하였다. 중국얼룩날개모기의 월별 평균 난성숙기간은 3월에 13.8일, 4월에 8일, 5월에 5.0일, 6월에 4.5일, 7월과 8월에 각각 3.4일, 9월에 4.4일 그리고 10월에 6.3일로 확인되었으며 온도가 낮을수록 난성숙기간이 길었다. 산란부터 부화까지의 기간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3월에 9.0일, 4월에 5.1일, 5월에 3.7일, 6월에 2.3일 그리고 7월 2.0일, 8월에 2.2일 9월에 4.5일 그리고 10월에 5.3일로 나타났다. 산란 수는 온도가 낮은 3월, 4월 그리고 10월에 평균 100개 이하로 나타났고, 5월에 147.8개체 그리고 6월에서 9월에는 모두 150개 이상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초봄과 늦가을의 낮은 온도가 모기의 난 발육과 산란 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하는 식물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해충이므로 지속적인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